



동우컴퍼니

왜 반복하는가?

왜 반복학습이 중요한가? 이는 의식적인 반복이 무의식적 습관을 낳아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화된다는 뜻이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6천년 동안 하신 말씀을 되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이 있는데, 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생애를 세 번 반복하여 읽게 했고, 여기에 요한복음이 추가되어 사복음서를 통해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다.

명인(名人)이 되려면 명인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명인정신이란 반복을 두루 위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는 정신이다. 자동차를 만든 헨리포드나 무려 1093가지를 발명한 에디슨 등 과학자나 의학자들 모두 인간의 한계를 넘는 반복을 통해 업적을 남겼다. 올림픽의 영웅들, 시대의 아이콘인 아이돌들도 피나는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명연주자들, 성악가들도 반복의 일상을 살아 최고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요즘 로봇산업이 뜨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임상실험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값진 것일수록 거저 얻어지는 법은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왜 설교를 반복하느냐고 한다. 내 답은 이렇다. “당신 금메달 따라고.” 어떤 분야에는 최고가 되라고, 전문가가 되라고 나는 설교를 반복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보다 복습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들은 네 번이상의 반복을 하도록 학교에서 지도한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신6:6~7)

전문가가 되길 원하는가? 최고가 되길 원하는가? 반복해라.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요즘 우리 예배에서 목사님이 자주 부르시는 찬양인데, 지난 2부 예배 말미에 이 찬양을 부르며 두 팔을 위 아래로 흔드는 이시대 목사님을 보았다. 이시대 목사님 스스로 이런 율동을 만들어 하실 분이 아님은 다 알 것이다. 그렇다. 목사님이 하시던 율동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약간은 멋쩍은 표정이 보이기도 했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그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유념해서 보았다. 그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등 병자를 안수하실 때,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하신다. 침을 뱉어 눈에 바르고, 입에 손을 놓고 ‘에바다’를 외치신다. 해외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폭소가 터지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들이 보기에 목사님의 방식이 생소하고 더러는 비위생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단순모방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목

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작업이 끝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해가는 일이다.

가끔 목사님을 보며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분이란 생각을 한다. 더더구나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런 모습은 타고난 면도 없이 알겠으나 그것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 목회 30년을 이어오시면서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라 생각한다. 뭐든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성품에 누구보다 더 하나



성공은 나를 비우는 모방에서 비롯된다

리고 그 철저한 모방의 노력에서 성공의 DNA를 보았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공자를 모방하며 따라가다 보면 성공에 이른다’는 말씀을 단에서 건, 사석에서 건, 강의를 통해서 건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먼저 나보다 앞선 자를 성공자로 인정하고 그의 방법을 따라 배우겠다는 자세가 없이는 모방할 수 없다. 곧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모두 버리고 나를 철저히 비우는 자세에서 모방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체질적으로 그럴 수 없어”, ‘에이 나는 내 방식이 있어’, ‘내가 경험한 바로 저건 아니야’, 이런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모방을 시작할 수 없다. 모방은 철저히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

사님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모방의 자세와 믿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식이나 찬양, 예배 인도 등 모든 점에서 목사님을 따라하는 것이 모방의 모델이라 여겨진다. 이시대 목사님 스스로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오늘의 이시대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부단히 나를 비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과거의 생각, 경험, 지식 등에 매몰된 채 내 아집만 앞세워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겠지만, 정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단히 나를 비우

님의 사랑과 관심을 끌겠다는 선한 욕심,
천국에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열두지파를 심판하겠다는 꿈
이 찬양을 해도 다윗처럼 가랑이가 찢어
지든 말든, 누가 비웃든 말든 최선을 다
하고, 기도를 해도 엘리야가 가랑이 사이
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던 것처
럼 사력을 다하며, 설교를 해도 사도 바
울이 밤을 새가며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
게든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알고 혼신을
다하시는 것이다.

인생에 왕도는 없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첩경이 예비된 것도 아니다. 공짜 없다는 말이다. 나를 비우고 모방하라! 순종하라!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라! 당신도 변화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한은택 전도사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월 첫주부터 금요일예배가 수요일예배로 바뀝니다

장소: KBS 88체육관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8)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난주일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침 기도를 하고 있던 나는 '이 시간에 누가일까' 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조카 녀석이었습니다. 웬일이냐고 했더니 그 녀석 하는 말이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니,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지.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라고 했더니, 그 녀석 고백하는 말이 '병원 가는 게 죄 짓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믿음이 좋은 녀석이라 그런 고민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이 문제가 필시 조카 녀석의 고민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귀신을 쫓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능력을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자주 고민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막2:17).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서 병을 고쳐야 합니다. 올챙이 시절을 지나 개구리가 되듯 믿음도 성장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자원적 믿음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들이 소유한 믿음을 말합니다. 즉 버스를 믿고 타는 것, 음식점에서 아무 거리낌이나 의심 없이 음식을 먹는 것 등의 믿음입니다. 다음 단계는 구원적 믿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로 초보적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정도의

기적도, 과학도, 문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을 일컫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굴길 것이라는 큰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소유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제 갓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아파 병원에 갈라치면 '믿음도 없이 무슨 병원이냐? 안수 받고 나아지'라며 마구 나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걸음마 하는 자에게 '왜 못 뛰냐'고 나무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괜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기면 어쩔니까? 감기몸살이 왔는데 기도해야 한다고 추운 기도처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감기가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법이고 분량대로 행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내 믿음으

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아이는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갈비가 아무리 맛있어도 아이에게는 무리지요. 아직 이빨이 없어 씹지 못하는데 강요하면 어찌라는 겁니까? 탈나지요. 그러나 그 아이도 자라면 갈비도 뜯고 거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당신도 처음부터 갈비를 뜯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14:1~3)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결국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뒤편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라 여긴다면 넌센스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수술할 때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시는 분도, 치료과정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눈이 터져서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오전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위해 약간의 식사를 한 뒤, 원활한 소화를 위해 소화제를 먹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단에 오르면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의학이 발달하여 예전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병들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과학자나 의학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핸드폰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인간

의 두뇌는 하나님을 닮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지연되었듯이, 우리의 고착된 사고방식이 복음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만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세요. 약도 드시고,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수술하세요. 절대 죄가 아닙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유하라

니다. 날이 추우면 히터를 틀고,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하고, 어두우면 불을 켜야 하듯,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막16:18) 은사적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안수하고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칩니다. 더욱이 사람이 손을 뻗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와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주일 오후 3시 예배는 은사집회로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통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육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16:26).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될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요삼1:2).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든지, 의사나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 믿음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괜히 가랑이 찢어가면서 보폭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키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보폭은 커지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유하고 있습니다. 헨리포드나 에디슨,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나 결핵을 발견한 로베르트 코흐 같은 의학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하고 시련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비밀된 지혜를 허락하사 인류를 무지에서, 병에서 건지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과학자 몇 분이 저희 집에 유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과학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곧 화성에 발전소를 지어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기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궁화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저는 '저것은 우리를 위해 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위성을 통해 전국지교회에 예배실황을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를

주일은사집회

시간: 매주일 오후 3시~6시

장소: KBS 88체육관

문의 02.533.9191

대학부, 기대해주십시오!



2016년, 저는 차근차근 목적한 바를 향해 걸겠습니다. 의욕만 앞서

서 처음부터 뛰다가 숨이 차서 무너지는 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목회도 단거리 달리기 아님니다. 장거리 마라톤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매일 매일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만큼 얻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6년 새해, 저에게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

을 대학부와 잇는 것입니다. 대학부 예배를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색질병에서 놓임 받고, 새 방언을 말하는 등, 예수 중심 2세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중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항상 저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또한 대학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예수중심의 1세대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기록하셨다면, 대학부와 저를 비롯한 예수중심의 2세대들이 사도행전 30장의 역사를 기록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의 은혜와 관심으로 만들어진 예수중심 아카데미를 더욱 부흥시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자리지만, 어찌 보면 목회자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통해 총회장 목사님의 인생성공 비결과 이시대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배우고, 성공하신 저분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설 것’이라는 교육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저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배운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항상 실천하겠습니다. 셋째는 2015년부터 시작된 대학부 스터디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어, 중국어, 컴퓨터관련 자격증, 한국

사로 구성된 스터디 모임에 더욱 집중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대학부 생활만 열심히 해도 이 네 가지 과목을 완벽히 정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대학부원들을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담대함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대로 스터디 모임을 통해 실력을 키워 훗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학부와 예수중심의 2세들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열심히 달려 나가실 새로운 30년, 대학부와 저도 뒤처지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기도와 노력이라는 친구들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서울교회 대학부 선동호 전도사

다짐의 다짐!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것이다. 나라고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린다. 작심삼일도 사흘 만에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30년도 300년도 갈 수 있는 것 아

니겠는가. 즉 다짐은 나와의 약속일진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차선은 없다는 다짐, 또한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사흘 만에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그 다짐은 영원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을 따라가며 배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반복이다. 성실과 정직의 반복, 사랑의 반복, 기도의 반복, 최선의 반복... 이 반복의 연속을 가지고 나는 목회 달인이 되려고 다짐해본다. 미래 이초석 목사님의 꿈을 꿉 본다. 나의 롤모델인 목사님은 청년도 가기 힘

든 길을 기필코 정신으로 무장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외치시며 몸소 보여주신다. 말로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도전이 된다. 그 모습이 나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고자

노력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뛰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또 어떤 일든지 마음껏 사용하시기 편한 종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다짐이다. 이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나는 무한 반복적인 다짐을 하며 이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다짐을 이룰 것이다. 목사님을 닮은 목회자, 그 날을 그리며 다짐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다잡을 것이다.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교회 중고등부 이현승 전도사

딴으로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의 종 길을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높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봄에 설교를 통해서 높여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과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혁신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한도 끝도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 7년간 악령과 귀신과 사투를 벌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정신분열까지 일으키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겪으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같은 훈련이었지만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다시 타락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서울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2016년 저의 각오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잘 먹여서 정착시키는 일을 통해 중고등부가 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가 정말 좋고, 중고등부 지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중고등부에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 중고등부가 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더욱 부지런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게을렀다는 핑계를 버리고 기도하며 부지런하려고 노력했는데, 2016년에는 게으름을 완전히 떨쳐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간 금식하며 작정기도도 하고, 총회장 목사님의 부지런에 관한 설교를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부지런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반드시 부지런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점점 바빠진다고 핑계

대지 않고 점점 기도시간을 늘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지식도 정립하여 제게 맡겨진 양떼를 옳은 길로 잘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며 병원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딴으로 사는 인생인 만큼 주님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사망이든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완수하여, 천국 가서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서울교회 중고등부 이혁신 전도사

정직과 진실이란 친구



2016년 새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달력이라는 것은 인류

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가상의 시스템이다. 또한 우리는 달력이라는 시스템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 아마도 새해를 우주력으로 본다면 큰 변화가 없는 아주 평온한 시기일 것이다. 이처럼 의미는 인간인 우리들이 만들어내기에 새해의 각오, 다짐, 희망, 꿈,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내 안의 꿈틀거림이 없다면 우리는 평온한 우주처럼 내 삶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현상유지가 아닌 퇴보하는 악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새해가 언제나 좋은 이유는 이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잃고 있던 열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 슬로건은 “나에게는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하라!”이다. 목사님께서 정직이란 마음에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기에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진실은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며, 반대로 진실의 결핍은 국가의 발전을 막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인간관계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늘 가르치셨다.

필자는 목사님 말씀을 곱씹는 버릇이 있다. ‘나에게 있어 정직한 것은 무엇이고

진실된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찾는 습관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코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필자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나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곧 내 영·혼·육에 필요한 것을 충성되게 공급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부리시는 분에게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요, 맡은바 직분에 묵묵히 일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진실은 나에게 먼저 정직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향기, 곧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의 향기가 아닐까 싶다.

새해에는 목사님께서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고, 차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목사님처럼 기도의 씨앗, 노력의 씨앗, 최선의 씨앗을 심어, 나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 정직의 단추, 진실의 첫 단추를 끼워 보고자 다짐해본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복극성 하나를 걸어놓고, 그쪽으로 매일 한 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 결국 원하는 곳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새해에 다짐한 결심이 어떤 것이든,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굳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친 마음에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뺨 떨어지고 싶은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며, 불평불만을 희망과 용기로 바꿀 수 있으니 말이다. 결국 모든 일의 결심은 나의 태도를 목표 쪽으로 바꿔주는 운전대이다.

“오늘 당신은 가슴 뛰는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인천교회 청년대학부 이정금 전도사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어머니와 누나 두 분 모두 현재 서울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제 모습은 항상 어머니의 기도제목 1순위였고, 학창시절 당시 아버지께서도 목회의 길을 걸으시며 교회에 미쳐있던 가정을 참 원망하며 가정과 등을 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 창문으로 한 분이서 계신 채 자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

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느낀 제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마침 주방에서 어머니와 그 때 당시 신학생이던 누님이 서로 고주알매주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어머니와 누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믿음도, 신앙도 쥐뿔만큼도 없던 저였지만 꿈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게 어머니와 누님에게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 말을 들은 어머니와 누님의 표정이 걱정이나 위로의 눈빛이 아닌 마치 ‘너도 올게 왔구나’라는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 이후로 저는 누님을 따라 서울교회 대학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기

도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성령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 지난 날 저의 만행을 후회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니 그토록 원망했던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불행하게만 느꼈던 제 삶 또한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2015년 전도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가진 것, 배운 것,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아 값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아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가

르침 받은 대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믿을 변치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 차곡차곡 은혜에 도달하겠습니다. 창가에서 저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여러 믿음의 스승 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해주시는 말씀과 가르침대로 2016년 한 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인천교회 중고등부 곽이레 전도사

주인의식!

::참된 깨달음::

무디 목사님이 투덜거리며 일하고 있는 청소부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처럼 일하는 정신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은 식료품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사장이라는 마인드, 내 상품을 팔고 있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도 가난했던 시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인종차별을 받았지만, 그가 퇴직할 때엔 모든 직원이 그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결국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강한 실행력을 갖춘 태도, 옳은 일을 옳게

하려는 태도, 깊게 생각하는 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객관식이라고 할 때의 ‘객’은 바로 손님 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객관식으로 살아간다면, 주어진 답안지 중에서 가장

무난한 길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객’, 즉 손님 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손님 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주관적인 삶’, ‘주인 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님 과 주인의 삶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128:2).

김정욱 전도사

jcc0115@naver.com

